

청년 세대의 물리적·정서적 고립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강 상 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의 공동체성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절대적 사회관계의 양인 물리적 고립과 사회관계의 질적 적정성인 정서적 고립으로 분리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 기반,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소득 수준이며 학력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지위와 혼인상태 등도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경향성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 및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청년 사회적 고립, 정서적 고립, 물리적 고립, 청년 빈곤, 중장년 고립

* 주저자, ks9629@mail.knou.ac.kr

1 서론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지속적인 금융위기 발생, 거대 구조조정,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 고용, 장기 실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직면하였다(문진영, 2008). 신자유주의는 개인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을 주장한다. 이때 개인은 시장 경제 체제의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발적 착취를 행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신경아, 2013).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저숙련, 낮은 수입, 보유 자산 취약이라는 청년기 특성과 맞물리며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가로막게 되었다. 그러나 고학력·고스펙을 쌓아도 취업난을 겪게 되면서 평범한 삶이 인생의 목표로까지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사회 진입 초기부터 시장화된 개인주의 사회에서 불안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만성적 탈락의 공포를 겪으며 지속적 탈진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김홍중, 2015). 청년세대에게 발견되는 고립과 은둔 현상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상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개인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성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 사회지표 발표에 따르면 19~29세 청년의 약 12.7%가 외롭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년도 약 14.7%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5).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야 할 시기임에도 청년 세대는 물리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단절을 경

험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사회참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난, 경제적 불안정 등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지지 기반마저 약화되면 고립감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악화, 사회 부적응,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김혜원, 2022; 노가빈 외, 2021). 따라서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아가는 시기에 오히려 사회와 단절하고 소외되어가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이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사회적 고립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신뢰 하락, 사회적 참여 위축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고립 청년은 최대 54만명, 은둔 청년은 최대 2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청년 세대 전체의 사회적 참여 감소와 경제 비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도전 과제로 간주된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청년 개인의 건강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개인에게 인식된 사회적 고립은 전반적인 인지 수행 능력의 저하, 인지 저하의 가속화, 실행기능의 저하, 부정 정서와 우울에 영향을 준다(Cacioppo & Hawkey, 2009). 청년기는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인 만

큼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관계 형성에 실패할 시 고립된 청년들은 취업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꺼리게 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기에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단절된 상태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 사회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가 약화 됨은 물론 세대 간 연대와 공적 책임 의식 역시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고립의 경험은 청년 개인의 사회 정의에 대한 감수성, 특히 평등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Levitas, 2002).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작용과 공공의식은 개인의 평등 가치 수용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타인과의 접촉이 단절될수록 타자에 대한 공감, 차이에 대한 존중, 권리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해 역시 악화될 수 있다(Putnam, 2000; Uslaner, 2002).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현재의 고립 상태에 국한시켜 이해하기보다, 향후 이들이 주도하게 될 사회의 평등성과 포용성의 수준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바라보며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공동체 내 상호신뢰와 소속감의 약화를 초래하며, 사회적 연대 기반을 훼손하고 시민의식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인, 2023; 민보경, 2023). 과거 청년세대는 젊음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으로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은 청년들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의 공동체성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Cornwell과 Waite(2009)는 사회적 고립을 외부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객관적 측면, 개인이 고립되었다는 느끼는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객관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양이 충분하더라도 개인이 높은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개인의 정서적 고립감의 수준과는 별개로 외부 지지체계와 물리적 관계의 양이 부족한 것도 사회적 고립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Cacioppo et al., 2011; Coyle & Dugan, 2012).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는 객관적 고립(objective isolation)과 우울, 불안, 자아개념의 저하 등 정서적 단절을 의미하는 주관적 고립(subjective isolation)으로 하위 개념이 구성된다(변금선 외, 2024; Cornwell et al. 2009). 따라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접촉이 부족한 객관적 상태와 함께 주관적인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등이 깊이 연관된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Wenger et al.,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절대적인 사회적 관계의 양인 외적 고립과 관계의 적정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까지 포괄하는 주관적 측면인 내적 고립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관적 고립과 객관적 고립에 소득을 비롯한 학력, 노동지위 등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현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구조적 불평등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고립이 자신과 사회를 불리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적 위축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함이다.

2 이론적 논의

1. 정서적 고립

정서적 고립(subjective isolation)은 외로움이나 고립감, 소외감 같은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Hawley & Caioppo, 2010; 최지현 외, 2022). 정서적 고립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결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단절감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감정적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을 나타내는 외로움(loneliness)과 외로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립(isolation)에 이르는 개념까지 확대된다(Vincenzi & Grabosky, 1987). 사회의 준거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벗어나 있으며 세상에 홀로 남아 있다는 정서적 고립은 무력감, 절망감과 함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나경, 2022).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정서적 고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실업 장기화 및 취업난과 같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의 소속감 등을 박탈시켜 본인과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대인관계 등에서 정서적 고립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초기에 속하는 청년기는 타인과의 신뢰감, 친밀감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생애 단계이다(Erikson, 1968).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고 공허함 또는 소외감 등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고립

감은 대학생의 자살 생각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Hyman et al., 2010). 학업의 성취와 노동시장에 대한 성공적 진입, 결혼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발달 과업을 요구받으나, 이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스트레스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자원과 기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물리적 고립

물리적 고립은 외부와의 접촉, 혹은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을 만나는 빈도,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사회적 결사체의 참여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Holt-Lunstad et al., 2010) 객관적 지표들에 기반하여 고립의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가족·친구·동료와의 직접 접촉 빈도, 사회모임 참여 여부, 동거인 존재 유무 등에서 관계망의 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며 주관적 고립과는 구별된다(Cornwell & Waite, 2009). 결과적으로 물리적 고립은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이 부족한 상태, 개인이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역으로 개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합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이상철 외 2017; Menec et al. 2020; Taylor et al 2020). 이에 OECD에서는 물리적 고립이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하여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의 주요 항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 등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시킨다.

최근 물리적 고립이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물

리적 고립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Cacioppo et al. 2011; Cacioppo et al. 2006; Cornwell et al. 2009; House 2001).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로 인한 외로움, 의미있는 타인과의 지지적 관계 단절 등이 물리적 고립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삶의 질, 건강 악화, 더 나아가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Cacioppo et al. 2006; Hawton et al. 2011; Holt-Lunstad et al. 2010).

한국은 팬데믹 이후 지속된 재택근무 확산과 청년 1인 가구 급증 등이 물리적 고립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물리적 고립은 단순 생활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기관리 행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강상준, 2025).

3.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러 경험 연구에서 성별, 연령, 결혼, 소득, 노동지위,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사회적 고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성별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예측 변수 중 하나로 밝혀졌으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Umberson et al., 2022; Ryo et al, 2021) 혹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고립되었다는(Umberson et al., 2022; Cudjoe et al., 2020)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는가 하면, 성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다(Umberson et al., 2022; Kotwal et al., 2021). 이와 같은 결과들은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회적 연결망의 양과 질에서 성별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사

회적 연결망의 질적 수준을, 남성은 사회적 연결망의 양적 범위나 크기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느끼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과 연령 요인의 관계에서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집단에서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이 강하다(노병일 외, 2007; 박경란, 2012; 왕연연 외, 2022; Noguchi et al., 2021). 그러나 최근 들어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바, 청년기 이전의 부정적 생애 경험부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규명하는 접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주도적 세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될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가구의 구성형태로 직결되는 요인이다. 최근들어 1인가구의 증가가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결여 혹은 고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명진 외, 2014; Pasanen et al., 2021). 미(비)혼에 의한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청년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구조적 환경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 세대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노혜진, 2018; 박수선, 2019).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의 형성 어려움 등이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며 그 중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 것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박수선, 2019).

소득은 대표적인 사회자원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 수록 공동체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지니고 있으며 낙인감은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다(Stewart et al., 2009). 낮은 소득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축소시켜 외부와의 접촉 수준을 낮게 만든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도 저소득 지역에 거주할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소득과 사회적 고립의 밀접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Natio et al., 2021).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에 접근할 기회가 막혀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Cuddy & Reeves, 2015). 이와같은 맥락에서 청년 세대의 소득 요인은 앞서 언급된 노동시장 진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이 받는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노동 지위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저임금, 인사 불공평 등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Artazcoz et al., 2004).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낮은 노동 지위에 따른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처우는 자신에 대한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된다. 사회생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단절로 인식되어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게 된다.

학력은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더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학력이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교육 기회의 결여 및 접근의 어려움이 성별(여성) 및 (저)소득과 결합되면 높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김안나, 2007). 반면, 학력이 물리적 고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서적 고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역시 제시된다(김춘남 외, 2018). 학력을 소득이라는 사회자원과 연결시키면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으로써의 교육이 소득이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추론을 가져온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저학력 집단이 사회적 고립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된 것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박찬웅 외, 2020)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570)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1,745	48.9	학력	고졸미만	23	0.6
	여성	1,825	51.1		고졸	236	6.8
연령대	19~24	152	4.3		대학졸업	2,926	82.0
	25~29	1,103	30.9		석사재학이상	385	10.8
	30~34	1,103	30.9	소득수준	하	141	3.9
	35~39	1,212	33.9		중하	922	25.8
혼인상태	미(비)혼	2,543	71.2		중	1,831	51.3
	기혼	1,027	28.8		중상	601	16.8
노동지위	정규직	442	12.4	상	75	2.1	
	비정규직	3,128	87.6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로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실질적·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 실시되었다(서울특별시, 2023). 고립 및 은둔 관련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성향, 자기관리 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생활 실태, 지원 필요 사항 등이 조사되었으며 실태조사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이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세대원 중 만 19~39세의 청년이 포함된 5,221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조사되었고 조사에 응한 청년은 6,926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중요변수에 빠짐없이 응답하되 노동시장에 진입한 최종 3,570명이 분석 대상으로 추출되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의 비율은 남성 48.9%, 여성 51.1%로 여성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을 보인다. 연령대는 35~39세가 3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25~29세 30.9%, 30~34세 30.9%, 19~24세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8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석사재학이상 10.8%, 고졸 6.8%, 고졸미만 0.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에서는 ‘하’라고 응답한 집단이 3.9%, 중하 25.8%, 중 51.3%, 중상 16.8%, 상 2.1%의 분포를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정규직이 12.4%, 비정규직은 87.6%의 분포를 보인다. 자세한 현황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핵심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검증은 t-test, 다변량 분석

(ANOVA)으로 검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 개념인 정서적 고립(모형 I)과 물리적 고립(모형 II)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두 가지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가지 종속변수만으로 독립변수가 주는 절대적 영향력의 유의성만을 파악하면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좀 더 민감하게 검증하고 해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정서적 고립

정서적 고립 변수는 일상의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 급하게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 및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내용은 ①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②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③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④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변수가 구성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가족/친구’, ‘친구’, ‘그 외 타인(이웃, 직장 동료 등)’, ‘없음’ 등에 다중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없음’ 항목을 제외한 여타 문항에 체크를 하게 되면 조언이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문항별 합이 많을수록 정서적 고립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각 문

항의 변수 계산은 역문항 방식으로 처리하여 높은 값이 나올수록 정서적 고립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6$ 으로 나타났다.

2) 물리적 고립

물리적 고립 변수는 가족, 친인척, 친구 및 지인 등 타인과의 교류 행위의 물리적 양(횟수)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항목에서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설명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질문 내용은 ①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②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③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④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변수가 구성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등 총 6점 리커트 척도로 구분하되 역문항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높은 값이 나올수록 물리적 고립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03$ 으로 나타났다.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구의 경제수준, 노동 지위 등 경제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성별과 혼인상태, 노동 지위는 더미 변수화하였는데 혼인상태는 기혼과 미(비)혼으로 노동 지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연령 변수는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세 단위

로 학력 변수는 고졸미만, 고졸, 대졸, 석사 재학 이상 등으로 서열화하였다.

4 연구결과

1. 집단 간 차이검증

정서적 고립, 물리적 고립에 대한 집단 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 요인에서는 정서적 고립에서 남성(2.49)이 여성(2.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고립도 남성(3.09)이 여성(3.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요인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고립의 수준과 물리적 고립의 수준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물리적 고립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학력 요인에서는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립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고졸과 대졸을 경계로 하여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의 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와같은 경향성은 소득 요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소득 수준을 ‘중’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중하’라고 응답한 집단을 경계로 하여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의 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집단 간 변수 분석

구분		정서적 고립 (M=2.46)	F/t (p)	물리적 고립 (M=3.04)	F/t (p)
성별	남성	2.49(.65)	.387 (.699)	3.09(.86)	.387 (.485)
	여성	2.48(.60)		3.07(.85)	
연령대	19~24	2.49(.68)	1.923 (.124)	2.96(1.01)	8.815 (.000)
	25~29	2.46(.61)		2.98(.85)	
	30~34	2.46(.62)		3.10(.84)	
	35~39	2.52(.64)		3.15(.85)	
학력	고졸미만	2.90(.64)	17.496 (.000)	3.34(.85)	17.917 (.000)
	고졸	2.71(.70)		3.40(1.10)	
	대학졸업	2.47(.61)		3.07(.83)	
	석사재학이상	2.38(.64)		2.89(.84)	
소득수준	하	2.83(.73)	29.356 (.000)	3.65(.98)	71.356 (.000)
	중하	2.60(.65)		3.36(.88)	
	중	2.44(.58)		3.00(.79)	
	중상	2.35(.63)		2.79(.79)	
	상	2.42(.72)		2.57(.99)	
혼인상태	기혼	2.42(.59)	-3.422 (.001)	3.01(.85)	-2.774 (.006)
	미(비)혼	2.50(.64)		3.10(.86)	
노동지위	정규직	2.46(.62)	-5.655 (.000)	3.04(.84)	-7.363 (.000)
	비정규직	2.64(.65)		3.36(.94)	

혼인상태에서는 미(비)혼 집단의 정서적 고립(2.50)과 물리적 고립(3.10)이 기혼 집단의 정서적 고립(2.42)과 물리적 고립(3.0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 지위 요인에서도 비정규직 집단의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이 정규직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에 대한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력·소득수준·혼인상태·노동지위 등의 차이가 각각의 고립 수준에 대해서도 집단 간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학력, 저소득, 비정규직의 미(비)혼 청년 집단

에서 고립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더하여 연령이 높은 청년 집단이 더욱 외부와의 물리적 고립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2. 모형검증

<표 3> 모형 I (정서적 고립) 결과분석

모형 I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3.097	.072	-	43.138	.000	-	-
성별	.007	.021	.006	.342	.732	.965	1.036
연령	.048	.013	.069	3.769	.000	.798	1.253
혼인상태	-.075	.025	-.054	-2.991	.003	.826	1.210
학력	-.068	.012	-.096	-5.601	.000	.922	1.084
소득	-.106	.013	-.136	-8.057	.000	.947	1.056
노동지위	-.114	.032	-.059	-3.527	.000	.943	1.060

R=.211, R²=.045, adjR²=.043, F=42.078***

성별더미 : 남=1/여=0, 혼인상태 : 결혼=1/미(비)혼=0

연령 : 5세 단위 구간 구분, 노동지위 : 정규직=1/비정규직=0

<표 4> 모형 II (물리적 고립) 결과분석

모형 II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4.081	.095	-	42.803	.000	-	-
성별	.008	.028	.005	.278	.781	.965	1.036
연령	.115	.017	.120	6.752	.000	.798	1.253
혼인상태	-.094	.033	-.049	-2.814	.005	.826	1.210
학력	-.081	.016	-.084	-5.067	.000	.922	1.084
소득	-.254	.017	-.238	-14.539	.000	.947	1.056
노동지위	-.214	.043	-.082	-4.973	.000	.943	1.060

R=.310, R²=.096, adjR²=.095, F=126.907***

성별더미 : 남=1/여=0, 혼인상태 : 결혼=1/미(비)혼=0

연령 : 5세 단위 구간 구분, 노동지위 : 정규직=1/비정규직=0

<표 3>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고립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 과 물리적 고립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I에서 성별은 두 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고립의 예측 변수로 성별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들 (Umberson et al., 2022; Kotwal et al., 2021)과 동일한 결과이다. 성별을 제외한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 노동지위 등은 물리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요인을 각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값(β)으로 비교하여 볼 때 두 모형 모두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립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의 수준은 정서적 고립($\beta=.120$)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두 모형 모두 미(비)혼의 상태보다는 기혼 상태가 고립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정서적 고립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고립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1인 가구에 비해 결혼 상태에 있는 가구에서 고립 현상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이명진 외, 2014; Pasanen et al., 2021).

학력 요인은 두 모형 모두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고립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리적 고립($\beta=-.096$)이 정서적 고립($\beta=-.084$)보다 더 강하게 고립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2007; 박찬웅 외, 2020).

소득 요인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립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물리적 고립($\beta=-.238$)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고립($\beta=-.136$)에서도 소득은 다른 요인보다 더 강하게 고립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도 소득은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와도 동일하다(Stewart et al., 2009; Cuddy & Reeves, 2015)

노동지위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일 때 소득 요인과 동일하게 물리적 고립($\beta=-.059$)에서 더 강하게 고립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적 고립($\beta=-.059$)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와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Artazcoz et al., 2004)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고립에서는 나이와 소득, 노동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고립에서는 혼인상태와 학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요인은 물리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R, R², adjR², F검증 결과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5 논의 및 결론

1. 논의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초연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의 심화가 청년세대의 문제로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사물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사회에서, 최대 수혜자 혹은 사용자일 것이라 예상되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은 청년 집단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신뢰의 하락,

사회적 참여의 위축,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배제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강상준, 2025). 사회적 고립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홍순철 2021). 더 나아가 개인이 맺는 관계의 문제가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쏟아내는 집단의 문제로 탈바꿈하여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김성아 외, 2024). 그러므로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접근 이상의 정책적·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고령층이 직면한 위기에 주목해 왔으나 청년 세대가 지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는 충분히 접근되지 못하였다(강상준, 2025), 아울러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 등으로 고립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한 심도있는 연구 역시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소득 수준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Stewart et al., 2009; Cuddy & Reeves, 2015)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 수준을 결정짓는 대표적 사회자원이다. 낮은 소득 수준일수록 사회적 연결망에 접근할 기회가 막히게 되고, 이는 결국 정서적·물리적 고립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고립감은 공동체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넘어 청년세대 스스로가 낙인감을 지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소득 요인이 정서적·물리적 고립감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적 고립에서 소득 수준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학력 요인이다. 학력은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의 핵심 요인이다. 교육 기회의 결여 및 낮은 접근성에서 기인된 학력의 격차가 정서적 고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학력 지상주의 및 학력에 기반한 능력주의의 결과적 현상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학력에 기반한 능력주의는 ‘도전의 실패’를 과정으로서가 아닌 노력의 부족과 고착된 결과로 인식시켜 패배감과 낙인감에 빠지도록 한다. 이는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재기하지 못하도록 고립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물리적 고립에서 소득 수준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연령 요인이다. 정서적 고립과는 달리 물리적 고립에서 연령 요인이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관계성의 단절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기 과업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회적 관계성 확장, 예를 들어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진출이 능동적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장벽에 가로막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외부와의 단절을 점점 더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수록 가족을 비롯한 친지, 지인들과의 접촉이 부담으로 다가와 관계망의 양적 수준을 점차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리적 고립이라는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수동적 단절이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현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은 성별에 관계없이 저학력, 저소

득, 비정규직 집단에게서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높으며 다인가구보다는 미(비)혼의 1인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생활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의 양상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결국 중장년기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 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세부 연구들이 미미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에게 닥칠 수 있는 이혼 및 조기 퇴직, 건강 악화(박선희 외, 2020; 이은희 외, 2023) 등의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년기부터 시작된 사회적 고립이 중장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있다고 예측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2. 결론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사저널, 2024). 학력을 비롯해 자격증, 외국어, 인턴 경험 및 IT 활용 능력 등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라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정규 교육을 마친 후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결혼과 출산에 이르는 ‘표준적 성인기로의 이행’을(Furlong et al., 2006) 수행시키지 못할 만큼, 일자리를 구하여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실업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기간은 길어지고 결혼은 지연되거나 포기되며 출산율은 저하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와 단절되고 소외되어 가는 고립된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난파된 로빈슨 크루소가 겪게 되는 홀로 된 삶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점점 다양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 고립은 이들이 주도할 사회의 평등성과 포용성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다양성의 확립은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만약 현재처럼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고착화 된다면, 공동체 내 상호신뢰와 소속감은 약화되고 사회적 연대 기반은 훼손될 것이다. 배제되고 단절된 상태에 장기간 머무르면 신뢰와 협력 구조가 약화 됨은 물론 세대 간 연대와 공적 책임 의식 역시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 고립의 경험은 청년 개개인의 사회 정의에 대한 감수성, 특히 평등에 대한 인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Levitas, 2002).

일본도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의 사회적 일탈이나 심리 문제로 국한시켰던 청년 고립 문제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2019년 생활 형편에 관한 조사(生活狀況に関する調査)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후, 사회적·정책적 경각심이 나타나 15세~34세로 한정해 오던 히키코모리 지원 대상 연령을 철폐하고 모든 연령으로 확대시킨다. 무엇보다 히키코모리 정책을 청소년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시킨 것은 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고립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전환시킨 것이다(김광희, 2020).

본 연구에서도 추론한 바와 같이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소득으로,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과 관련이 깊다. 사교육 및 계층화가

학력 격차의 배경으로 작동하면서 노동시장 진입과 소득 수준에 재차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년기의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장 및 교육제도의 양극화, 경제적 배제, 가족구조의 약화 등은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공교육제도에서의 배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사교육이 접목되면서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의 소외를 경험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제한적이며 직업훈련이나 청년층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초래되는 노동 및 복지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핵심 사항이다.

문제는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이다. 그리고 청년층에게 닥친 빈곤에 대한 ‘최후의 의존처(last resort)’로 기능하는 가족 역시 빈곤하다(김영, 황정미, 2013). 그러므로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의 빈곤에 대한 책임 의식이 국가와 정부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이 기대는 의존처로서의 가족 역할보다 모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방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 정책 제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접근과 정책적 해법이 절실하다는 인식과 공감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횡단적 연구 설계로 인해 변수 간의 엄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분석 대상이 서울 지역 청년층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한국 청년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지역 패널 자료나 질적 심층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 2025.12.04
- 심사 완료일 : 2026.01.02
- 게재 확정일 : 2026.01.02

참고문헌

- 강상준 (2025). “청년세대 사회적 고립이 일상적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서적·물리적 고립과 소득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제9권 4호, 33-66.
- 김광희 (2020). “한국의 청년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 일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와 8050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6권 3호, 467-480.
- 김성아·노현주 (2024). “팬데믹 사후 격리의 기간별 적격함의.” 『복지포럼』, 제329권, 68-81.
- 김안나 (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제32권, 227-256.
- 김영·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제14권 1호, 215-260.
- 김정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 경제적 안정성, 상대적 박탈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35권 3호, 315-337.
- 김춘남·박승민·박승희·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9권 10호, 1-3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제49권 1호, 179-212.
- 노가빈·이소민·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2호, 57-81.
- 노병일·모선희 (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7권 1호, 53-69.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제38권 2호, 71-102.
- 문진영 (2008).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등장과 복지 정책의 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99-117.
- 민보경 (202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신뢰와 행복”, 『한국인구학』, 제46권 4호, 107-137.
- 박정란 (2012). “단독가구 노인의 구조적 사회관계망 유형과 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1권 5호, 929-945.
- 박선희·최영화 (2020).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68권, 45-78.
- 박찬웅·김노을·유부원·윤민지 (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제21권 2호, 41-73.
- 변금선·김정숙. (2024).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형, 정신 건강의 관계-서울 청년의 이주 경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51권 3호, 67-108.
- 서울특별시 (2023).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신경아 (2013).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 『경제화 사회』, 제98권, 266-308.
- 왕연연·허만세·김영숙 (2022). “노인의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 제42권 3호, 351-368.
- 이나경 (2022).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 제42권 2호, 220-242.

-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1호, 229-253.
- 이상철·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4권 2호, 61-86.
- 이은희·이양수 (202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지역정책연구』, 제34권 1호, 133-158.
- 조성희·박수선·황경란 (2019). “중장년의 가족관계 실태와 지원방안”,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
- 최지현·조미형·이승영 (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제74권 2호, 53-78.
- 통계청 보도자료 (2025.03.25.). “2024 한국의 사회지표”,
- 홍순철 (2021. 06. 25). “왜 우리는 닿아있어도 외로울까.” 『한국경제』.
- 시사저널 (2024년 9월 28일자), “단군 이래 최고 스펙에도 ‘그냥 쓴다’는 청년 70만명”[김상철의 경제 톨아보기]
- Artazcoz, L., Benach, J., Borrell, C., & Cortes, I. (2004).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among gender, family roles, and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 82-88.
- Cacioppo, J. T., Fowler, J. H., & Christakis, N. A. (2009). Alone in the crowd: the structure and spread of lonel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77.
- Cacioppo, J. T., Hawkley, L. C., Norman, G. J., & Berntson, G. G. (2011). Social isol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231(1), 17-22.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l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31-48.
- Coyle, C. E., & Dugan, E. (2012).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8), 1346-1363.
- Cuddy, E., & Reeves, R. (2015). Poverty, isolation, and opportunity. *Social Mobility Memos*.
- Cudjoe, T. K., Roth, D. L., Szanton, S. L., Wolff, J. L., Boyd, C. M., & Thorpe Jr, R. J. (2020). The epidemiology of social isolation: 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5(1), 107-113.
- Erikson, E. (1959). Theory of identity development. E.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ueva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Obtenido de <http://childdevpsychology.yolasite.com/resources/theory%20of%20identity%20erikson.pdf>.
- Furlong, A., Leccardi, C., Ruspini, E., Biggart, A., Walther, A., Morch, S., ... & Monro, S. (2006). A new youth? Young people, generations and family life.
- Hawkey, L. C., & Cacioppo, J. T. (2010).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 218-227.
- Hawton, A., Green, C., Dickens, A. P., Richards, S. H., Taylor, R. S., Edwards, R., ... & Campbell, J. L. (2011). The impact of social isolation on the health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Quality of Life Research*, 20(1), 57-67.

- Holt-Lunstad, J., Smith, T. B., & Layton, J. B. (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mortality risk: a meta-analytic review. *PLoS medicine*, 7(7), e1000316.
- House, J. S. (2001). Social isolation kills, but how and why?. *Biopsychosocial Science and Medicine*, 63(2), 273-274.
- Hyman, S. M., Gold, S. N., & Sinha, R. (2010). Coping with stress and trauma in young adulthood. *Young adult mental health*, 143-157.
- Kotwal, A. A., Cenzer, I. S., Waite, L. J., Covinsky, K. E., Perissinotto, C. M., Boscardin, W. J., ... & Smith, A. K. (2021). The epidemiology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adults during the last years of lif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9(11), 3081-3091.
- Levitas, R. (2002).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Palgrave Macmillan.
- Menec, V. H., Newall, N. E., Mackenzie, C. S., Shooshtari, S., & Nowicki, S. (2020). Examining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combination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using Canadi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CLSA) data. *PloS one*, 15(3), e0230673.
- Naito, R., Leong, D. P., Bangdiwala, S. I., McKee, M., Subramanian, S. V., Rangarajan, S., ... & Yusuf, S. (2021). Impact of social isolation on mortality and morbidity in 20 high-income, middle-income and low-income countries in five continents. *BMJ global health*, 6(3), e004124.
- Noguchi, T., Saito, M., Aida, J., Cable, N., Tsuji, T., Koyama, S., ... & Kondo, K. (2021). Association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depression onset among older adults: a cross-national longitudinal

- study in England and Japan. *BMJ open*, 11(3), e045834.
- Pasanen, T. P., Tamminen, N., Martelin, T., Mankinen, K., & Solin, P. (2021). Profiles of subjective health among people living alone: a latent class analysis. *BMC Public Health*, 21(1), 1335.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Stewart, M. J., Makwarimba, E., Reutter, L. I., Veenstra, G., Raphael, D., & Love, R. (2009). Poverty, sense of belonging and experiences of social isolation. *Journal of Poverty*, 13(2), 173-195.
- Taylor, S., Landry, C. A., Paluszek, M. M., & Asmundson, G. J. (2020). Reactions to COVID-19: Differential predictors of distress, avoidance, and disregard for social distancing.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7, 94-98.
- Umberson, D., Lin, Z., & Cha, H. (2022). Gender and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3(3), 319-335.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http://dx.doi.org/10.2139/ssrn.824504>
-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57.
- Wenger, G. C., Davies, R., Shahtahmasebi, S., & Scott, A. (1996).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 age: review and model refinement. *Ageing & Society*, 16(3), 333-358.

ABSTRACT

A Study on the Physical and Emotional Isolation of the Youth Generation

Kang, Sangjun

Dept. of Social Welfare
KNOU

The core mechanism for creating a human rights society is the inherent human rights factor in citizens, so democratic countries a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human rights policies that citizens can feel. This is why an academic approach to factors such as human rights-related awareness and attitudes is necessary, and a representative issue is public opinion for and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of 12,198 people based on the data from the 4th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chi-square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support and opposition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discussion content is as follow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rate of support fo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entire population group. However, the group with high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found to be oppos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s a resul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support fo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but the higher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more opposition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i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more in-depth social discussions to ensure universal human rights.

| **Key Words** | youth social isolation, emotional isolation, physical isolation, youth poverty, middle-aged and elderly isolation